

# ‘그 실력 절맞게’…네일 ‘몸값도 1위’

2025 KBO 리그 외국인 선수 몸값 순위

kt 멜 로하스 주니어, SSG 기예르모 에레디아 180만弗 ‘공동 1위’  
한 번더 질풍같은 투혼 발휘…헥터, 니퍼트 넘어 역대 최고액 깨라

KBO 10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 영입을 대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외국인 선수로는 최고 수준의 몸값을 기록했다.

최근 KIA는 네일과 180만 달러(옵션 포함)에 재계약을 체결하며, 내년 시즌 V13을 위한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네일은 kt wiz의 중심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 SSG 랜더스의 강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와 함께 2025시즌 외국인 선수 몸값 순위에서 공동 1위에 올라섰다.

9개 구단은 외국인 선수 계약을 이미 마쳤고, 디펜딩 챔피언 KIA가 유일하게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다.

KIA는 기존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계약을 포기하고, 새 외국인 타자 파트릭 위즈덤과 막판 계약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새 외국인 타자 계약이 완료되더라도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연봉 규정(최대 100만 달러)을 고려할 때, 몸값 순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IA가 지난 16일 영입을 확정된 새 외국인 투수 애덤 올러도 1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2025시즌 가장 많은 몸값을 받는 선수는 KIA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kt wiz의 중

심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 SSG 랜더스의 강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로 확정됐다.

세 선수 모두 최대 180만 달러를 받는다.

네일과 에레디아는 이 중 20만 달러가 옵션으로 걸려 있다. 로하스의 옵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네일은 올 시즌 12승 5패, 평균자책점(2.53) 부문 리그 전체 1위의 성적으로

팀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리그 후반기 막판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시리즈에 복귀해 2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2.53으로 맹활했다.

KIA는 올해 그의 공헌도를 높이 사며, 내년 V13 도전을 위해 재계약의 최우선 명단에 올려놓는 등 적극적인 협상으로 잔류를 이끌어냈다.

네일의 재계약은 KIA 구단 역사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KIA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은 선수는 2018년 헥터 노에시(200만 달러)가 유일하다.

만약, 네일이 내년에도 에이스의 면모를 과

시한다면, 200만 달러 돌파는 물론 헥터의 기록까지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KBO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네일의 가치는 특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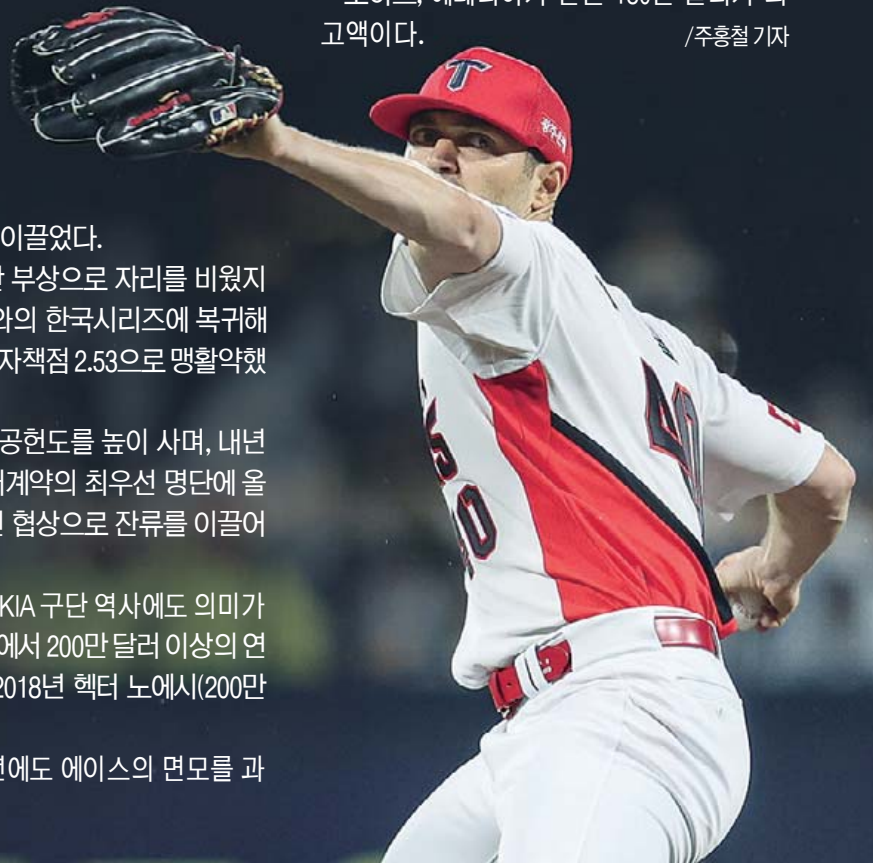
지금까지 KBO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은 2017년 두산 베어스의 더스틴 니퍼트가 기록한 210만 달러다. 네일이 2025시즌에 성공적인 활약을 펼친다면, 이 기록 또한 새로 쓰일 수 있다.

네일이 20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KIA 구단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셈이다.

외국인 타자 최고 몸값은 이번에도 깨졌다.

로하스, 에레디아는 받는 180만 달러가 최고액이다.

/주흥철 기자



## “정효불’은 계속된다”

광주FC, 이정효 감독과 “연봉 협상 완료” 4년 연속 동행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2025시즌에도 팀을 이끈다.

광주는 지난 24일 “이정효 감독과 2025시즌 연봉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광주 감독으로 부임한 이정효 감독은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팀을 1부 리그에 승격시켰다. 지난해에는 광주를

3위에 올려놓으며 구단 최고의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에도 팀의 K리그1 잔류를 이끌어냈고, ACLE 16강 진출도 목표에 두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이 끝난 후 전북현대의 유력한 감독 후보로 물망에 오르며 이적설 논란이 일었다.

광주 구단은 “이정효 감독 거취 관련 루머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고 2025시즌과 남은 ACLE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효 감독은 2025시즌에도 광주와 함께 동행이 확정됨에 따라 4년 연속으로 팀을 이끌게 됐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을 쏟을 전망이다.

광주는 곧바로 2025시즌과 ACLE 16강 진출을 위한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1월3일 태극 코사무이로 전지훈련을 출발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이정효 감독과 계속해서 동행을 이어가는 광주는 내년 2월11일 ACLE 7차전 산둥 타이산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2025시즌의 포문을 연다.

/박희중 기자



골프위크 선정 올해 LPGA 10대 뉴스 1위는...

## 리디아 고 파리올림픽 금메달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의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가 선정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골프위크는 25일 올해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 벌어진 10대 주요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리디아 고는 이 순위에서 1, 2위를 휩쓸었다.

리디아 고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골프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고, 곧바로 이어진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까지 석권하며 자신의 표현대로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

3위는 세계 랭킹 1위 벨리 코르다(미국)가 5월 US여자오픈에서 한 홀에서 10타를 친 사건이 선정됐고 4위는 LP GA 투어 몰리 마루 서만 커미셔너의 사임이 이름을 올렸다.

5위는 코르다가 4월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5연승을 달린 것이다.

렉시 톰프슨과 브리트니 린스킴(이상 미국) 등 L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의 은퇴가 6위, 7위는 찰리 헐(잉글



2024 파리올림픽 골프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한 뉴질랜드의 리디아 고가 오로 마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랜드)이 US여자오픈 도중 흡연한 장면이 선정됐다.

8위는 미국과 유럽의 여자 골프 대항전 솔하임컵, 9위는 지노 티피쿰(태국)이 LPGA 투어 사상 최대 우승 상금 400만 달러(약 58억원)를 받은 일이 차지했다.

마지막 10위에는 32세에 처음 LPG A 투어에서 우승하며 시즌 2승을 거둔 로런 코글린(미국)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 새해, 새 도약...내일이 더 빛나는 스포츠도시 만들자

광주시체육회 제8차 이사회,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 다짐

광주시체육회가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해 각종 현안사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3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4명, 이사 24명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3건, 의결사항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당연직 임원 변경과 추가 선임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종목단체 임원인준 승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 보고, 202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항, 2025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광주시체육회 이사진들이 제8차 이사회를 마친 후 새해 광주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취임 후 2년 동안 임원들의 성원과 광주체육인

이 하나로 힘을 모아 광주체육발전을 위한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새해에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

최와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투명하게 추진해 광주체육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한국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지난달 14일 열린 프리미어12 쿠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2회말 만루홈런을 터뜨린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 KIA 김도영, 프리미어12 ‘톱 3’ 선정

WSBC ‘프리미어12 선수 톱10’ 선정...MLB 신인 1순위 바자나보다 앞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 통합 우승을 이끈 김도영이 11월 끝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SB) 프리미어12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 ‘톱3’에 들었다.

WSBC는 지난 24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해 프리미어12를 중계한 엘릭스 코언이 선정한 프리미어12 선수 톱10’을 소개했다.

이 순위에서 김도영은 3위에 이름을 올려 올해 프리미어12에서 보인 실력을 인정받았다.

1위는 알론소 가이탄(멕시코), 2위는 맷 쇼(미국)였다.

가이탄은 올해 프리미어12에서 19타수 10안타를 치며 타율 0.526을 기록했다.

쇼의 경우 34타수 14안타, 타율 0.412에 홈런 2개, 14타점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비록 우리나라가 슈퍼라운드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17타수 7안타, 타율 0.412, 홈런 3개와 10

타점의 성적을 내며 분전했다.

올해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 지명된 호주의 트래비스 바자나는 이 순위 5위였다.

바자나는 올해 7월 클리블랜드와 계약금 88만 달러에 계약한 ‘귀한 몸’으로 올해 프리미어12에서는 타율 0.263의 평범한 성적을 냈다.

김도영은 지난 21일 역시 WSBC가 소셜 미디어에 소개한 마이클 클레어 메이저리그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의 프리미어12 올해 대회 ‘톱10’ 선수 순위에서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은 올해 KBO리그에서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40도루 등을 기록하며 최연소 30-30을 달성,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와 3루수 골든글러브 수상 등 팀과 개인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연합뉴스

## 김주형, 3년 연속 마스터스 출전

임성재·안병훈도 출전 확정

김주형이 2025년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출전권을 획득했다.

AP통신은 지난 24일 “김주형과 루커스 클로버 등 10명의 2025년 마스터스 출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해마다 4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리는 ‘명인 열전’ 마스터스는 여러 가지 출전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년도 연말 세계 랭킹 50위 이내 선수들이다.

현재 세계 랭킹 21위인 김주형은 연말 랭킹 50위 이내에 드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2023년부터 3년 연속 마스터스 무대에 나서게 됐다.

김주형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세계 랭킹 20위까지 선수들은 모두 다른 자격 요건으로 이미 2025년 마스터스 출



김주형 /AFP=연합뉴스

전을 확정된 상태다.

김주형은 마스터스 데뷔전이었던 2023년 공동 16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공동 30위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2025년 마스터스 출전이 확정된 한국 선수는 김주형 외에 임성재와 안병훈이 있다. /연합뉴스